

### 오리업계-소비자 '상생의 나눔 한마당'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오리업계가 소비촉진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11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오리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오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리고기 나눔 행사를 통한 소비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리고기를 이용한 도시락 1천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으며 오리로스·오리불고기·오리통구이 등의 다양한 오리요리 시식행사도 열렸다. 아울러 훈제오리(800g)를 시중가격보다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으며 구매자에게는 휴대용장바구니와 오리요리 레시피북을 무료 증정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 12. 02]

### 오리고기 나눔행사 '호평'



한국오리협회는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오리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서울이주여성디딤터·서울마자렐로센터·살레시오다문화교육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에 모두 250kg 상당의 오리고기를 전달했다.

▶ 농민신문 성흥기 기자 [2013. 12. 06]

### 국내 첫 오리 가공설비 '무균실' 설계... 年 매출 3000억

지난 12월 2일 찾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 '다솔'의 오리공장에는 180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하얀 가운과 모자를 쓰고 부지런히 오리의 내장을 빼내는 가공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리 가공은 숙련된 기술자의 수작업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을 위해 공기정화 시스템 등 고가장비가 필요하다. 다솔의 오리공장은 5월 전남 장흥산업단지에 준공된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공장 내부를 들여다보니 모든 공정설비에는 철저한 위생시스템을 위해 고가의 자재인 스테인리스가 사용됐다. 특히 국내 오리업계 최초로 무균 설비와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65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670여 명이 근무하는 장흥공장은 전체면적 3만3000㎡ 규모로 연간 750만 마리의 오리 훈제와 포장육을 생산하고 있었다.

‘다향오리’ 상표로 유명한 (주)코리아더커드는 ‘다솔’과 ‘팜덕’ 등 오리고기 사육·생산·가공을 전문화한 계열사를 설립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81년 설립된 코리아더커드는 국내 오리고기 육 가공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선두 업체다. 30여 년 이상 축적된 가공 기술과 경험, 그리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오리알의 부화에서부터 사육, 가공, 포장까지 완벽한 위생설비와 공정을 통해 고품질 오리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코리아더커드는 남원공장과 정읍공장에 이어 장흥공장을 준공하면서 규모와 시설 면에서 큰 성장을 이뤄냈다. 코리아더커드와 계열사의 지난해 매출은 약 3000억 원(시장점유율 28%)으로 2, 3위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오리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 추세가 자리를 잡으면서 오리고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2011년 오리 총 소비량은 17만173톤으로, 2004년에 비해 약 381%, 1인당 오리소비량은 33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6%, 쇠고기 47%, 닭고기 66% 증가로 오리고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알칼리성 육류, 수용성 지방, 독소 제거 효과 등 오리고기의 장점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특유의 향을 없애는 등 안전하고 깔끔하게 손질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대중화에 한몫했기 때문이다.

국내 오리고기의 대중화를 이끈 코리아더커드는 다솔의 오리공장 준공으로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해외 구

매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국내 최고의 위생설비와 친환경 시스템으로 오리고기가 가공되는 것을 보고는 제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호주에 진출해 5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동남아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북경오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듯 오리고기 최대 소비시장이므로 고급 제품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박영진 코리아더커드 대표는 “오리 운반 차량의 자동 세척, 공정별 행균 소독 및 소독실 운영을 통해 라인별 교차오염을 없애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또 국내 최초로 가공설비를 100% 스테인리스로 설계해 무균실을 만들었고 외부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사육장 내부의 온도와 습도, 냉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 공기정화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국 상위 10%는 식품 안전성 등의 문제로 자국 음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 10%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국내 시장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문화일보 박민철 기자 [2013. 12. 04]

## 협찬금서 시작된 오리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첫발

오리의무자조금이 첫 걸음을 무사히 뒀다. 첫 번째 대의원총회에서 의무자조금을 설치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리업계는 한돈과 한우, 낙농, 육계, 산란

계에 이어 여섯 번째 의무자조금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 오리자조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리의무자조금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봤다.

◆ 의무자조금 도입 과정

오리자조금은 오리협회가 창립한 이후 오리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타 축종에 비해 뒤 늦은 산업화로 인해 자조금 도입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협회는 자조금의 명칭은 없었지만 업계 내부적으로 협찬금 형태로 자조금의 역할을 해 왔다. 이후에는 2004년에 오리가 가금수급위원회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자조금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본격적인 오리자조금은 2007년 가금수급위가 폐지되면서 오리협회내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첫해인 2007년 5천만원 거출을 목표로 세우고 시작한 임의자조금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총 1억 646만9천원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첫발을 내딛던 오리자조금은 이듬해인 2008년에는 농가거출금 2억5천만 원을 비롯한 정부지원금 5천만 원을 더해 총 3억 원으로 3배가 늘어났다. 2009년도는 2008년도 거출금 중 이월금 2억 원을 포함해 농가거출금 1억2천300만원에 정부보조금이 크게 늘어나 2억5천900만원을 보조받아 총 5억3천9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10년에는 농가거출금이 크게 증가했다. 총 2억9천100만원을 거출해 정부보조금 2억2천여만 원을 합쳐 5억1천825만2천원으로 자조금 사업을 벌였다. 2011년도 자조금 규모가 더욱 커졌다. 농가거출금이 3억원을 넘어서 3억6천39만2천원으로 5년 만에 7배가 늘어났다. 정부보조금 3억9천만 원을 포함해 자조금 규모는 8억

2천682만2천원으로 8배가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도의 경우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6억7천196만7천원 규모로 유지했다.

특히 의무자조금이 아닌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조금 중에서는 가장 큰 예산으로 자조금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임의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듯 했지만 그늘도 있었다.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무임승차자에 대한 문제점이었다. 또 자조금의 대부분이 오리농가가 아닌 계열업체나 부화장들의 부담이 높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2년여간의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계열업체나 부화장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자조금 거출률이 푹 떨어진 것이다. 올해의 경우 농가거출금을 4억여 원으로 목표했지만 최근까지 거출금이 4천만원이 채 못 되고 있어 자조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계획했던 자조금 사업 대부분을 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리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 설치를 의결했고 12월 중 대의원회를 비롯해 관리위원회를 구성기로 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정착을 위한 또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 12. 02]

**한국오리협회**  
**“국내산 오리고기, 미네랄 풍부하다”**

12월 12일 SBS ‘모닝와이드’는 지난 11월 29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국내산 오리고기 1000인분 무



△ 이창호 한국오리협회회장이 국내산 오리고기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료 시식행사를 소개했다. 신선한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그 맛을 알리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청계광장을 지나던 수많은 시민들 외에도 외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국내산 오리고기는 신선하기 때문에 짙은 선홍색을 띠면서 탄력이 좋다. 겨울철 오리고기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박사도 “오리고기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뼈건강과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겨울철 대표 보양음식”이라며 그 효능을 강조했다. 방송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불고 있는 한국 오리의 열풍도 조명했다. 모닝와이드에 소개된 인도네시아의 오리음식점에서는 한국식 훈제오리, 오리 짬뽕, 오리김치찜 등을 소개하며 빛깔 고운 한국 오리고기가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오리고기를 즐기는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식 훈제오리는 중국의 베이징덕보다 기름이 적어서 담백해서 좋다”고 말했다. 종교적 특성상 소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오리고기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데일리 [2013. 12. 13]

## 아듀~ 격동의 2013년 축산업 결산 (오리)



### ◆ 수요 증가에도 공급과잉

오리 산업은 생산 주기가 짧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고질병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무엇보다 수급조절에 따른 산업 안정화가 절실한 한해였다. 오리 산업 총생산액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1년에는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나 1인당 오리소비량은 2011년 3.13kg으로, 2004년 0.72kg이었던 것과 비교해 7년 새 약 335% 증가하는 큰 성장률을 보였다. 동기간 쇠고기 소비가 약 47% 증가하고, 돼지고기가 약 6%, 닭고기가 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리고기는 타 육류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공급과잉에 소비부진까지 겹친 불황을 이겨내진 못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오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온 훈제오리 시장이 한계에 부딪쳤으며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조금 등을 활용해 소비촉진활동을 벌여야 하지만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금년도 자조금 거출 실적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계열업체들은 경영



난이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 **자율감축...불황타개 노력**

올해 오리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황으로 종란감축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들며 불황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오리업계는 자구책으로 종란폐기에 나섰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총 250~300만개의 종란을 폐기했다. 하지만 불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 공급량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으로 인해 좀처럼 가격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스스로 불황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오리 산지가격 하락세에 따라 오리가격은 생산원가 이하에서 형성됐고 수많은 오리 사육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위기가 찾아왔다. 상반기 내내 지속되던 가격 하락세가 하절기 복 수요를 맞아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수급상황으로 연중 먹구름이 드리웠다.

◆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통해 불황타개 노력**

오리업계는 연초부터 지속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소비촉진 행사를 벌였다.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남산 걷기대회(거북이 마라톤), 오리데이, 오리나눔 한마당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오리고기 소비 확대에 불씨를 지폈다. 또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마자렐로센터, 살레시오다문화교육센터에 오리고기를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실시하면서 오리고기의 우수성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 **오리 의무자조금 시대 개막 앞뒀**

내년 오리 의무자조금 시대가 개막된다. 오리 산업은 지난 2007년 임의자조금 조성액 1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거출금을 늘려 2011년에는 정부 보조금 포함 8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면서 자조금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무자조금 전환이 가시화됐다. 이를 위해 오리협회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비로소 지난달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무자조금 설치를 승인했다. 이어 선거 규정에 따라 자조금대의원회 의장에 마광하 광주전남지회장, 관리위원장에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오리업계는 한돈과 한우, 낙농, 육계, 산란계에 이어 축산 자조금 중 여섯 번째 의무자조금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2013. 12. 13]

**‘토종가축 인정제’ 내년 실시 (오리포함)**

내년 1월부터 국내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으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9일 국내 고유 가축 유전자원 보호와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표 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고시했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됐지만, 그 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고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개 축종이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등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토종가축 사육 농가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2013. 12. 13]

## 괴산 오리농장 화재...피해 경미

12월 13일 오후 12시 42분께 충북 괴산군 아성리 김모(47)씨가 운영하는 한 오리농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농장 하우스 내 6㎡를 태워 4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지난 12월 3일 오리를 모두 출하, 하우스가 비어 있던 데다 12월 12일 내린 눈으로 지붕 물기가 많아 피해가 적었다고 밝혔다. 목격자 A씨 등은 "다른 비닐하우스에서 우레탄 작업을 하던 중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농장주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2013. 12. 13]

## 조현영, 오리 고기 가득 입에 넣고 앙~



여성그룹 레인보우의 조현영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을 했다. 조현영은 12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한 나를 위해 몸보신하러~ 몸보신엔 역시 오리고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조현영은 오리고기를 먹고 있다. 또 조현영은 투명한 피부를 자랑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조현영 사진에 누리꾼들은 "조현영, 피부 진짜 좋네", "조현영, 피부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조현영, 귀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스포츠서울닷컴 [2013. 12. 15]

## 방역불량 닭·오리농가 입식 제한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한파와 과거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12월 말)를 맞아 발생 차단을 위해 사육환경이나 방역이 불량한 닭·오리농가의 병아리 입식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전남도는 효과적인 AI 차단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닭·오리

등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해주는 축산계열회사 관계자 등과 지난 1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계열회사별 농가 입식 현황과 입식과 출하, 운송 등 자체 방역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사육 환경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식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사육 농가에 일시 입식 일시 출하(올인 올아웃)와 사육밀도를 준수해 적정 병아리 입식토록 당부했고 신규 입식 시에는 휴식기 동안 축사를 건조시켜 소독 후 재입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으며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가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 소독을 실시한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토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AI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도 및 시군 등에 26곳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허가 대상 닭·오리 사육농가 1052농가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담당공무원 295명에게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철새 도래지 10곳에 대해서도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한 방역 실태 확인점검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한 14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시민일보 황승순 기자 [2013. 12. 15]



간 지속되고 있는 오리산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오리업계가 자율적으로 종란 폐기 등 노력해 왔지만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는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실무추진단은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오리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해 수급조절협의회에 제출하면 수급조절협의회는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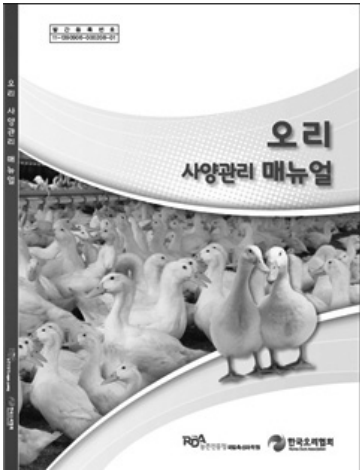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 12. 18]

### 오리수급조절협, 산업안정화 활동 본격화

오리수급조절협의회가 오리산업 안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12월 16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차 오리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기

### 농진청, 오리협회와 오리 사양관리 책자 발간

오리 사육 이렇게 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정부 3.0 추진의 하나로 민·관 정보교류를 통해 오리협회와 함께 오리 사육농가들을 위한 ‘오리 사양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 오리 산업의 총 생산액은 2012년 기준 연간 약 1조 4백억 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와 산업규모



에 비해 사양관리나 시설·환경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연구가 부족해 사육방법은 양계용이나 외국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오리 사육농가

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환경조건을 반영하고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육 지침서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책자에는 오리의 품종과 특징, 시설과 환경, 사양관리, 방역·위생, 질병 등 그간 국내외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육기술 뿐 아니라 학술적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과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리협회와 함께 출간되는 이 책자는 앞으로 협회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오리 사육 농가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오리 사양관리 매뉴얼’은 지난 2년 동안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해 국내 오리 전문가들이 자료 수집과 집필에 참여했으며, 한국오리협회를 통해 산업계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 오리 사육 농가들의 사육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가금과 최희철 과장은 “발간한 책자가 국내 오리 사육 농가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오리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더 나은 개정판을 출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2013. 12. 18]

## 오리 염색체는 80개

오리의 2배체 염색체 수는 80개로 닭의 78개보다 2개가 더 많다.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동일한 2개의 염색체 쌍은 상염색체가 78개, 2개는 성(性)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로 수컷은 ZZ, 암컷은 ZW이다. 조류별 염색체 수는 닭 78개, 칠면조 80개, 일본 메추리 78개, 북미산 메추리 82개, 거위 80개, 꿩 82개 등이다. 가금류의 성염색체는 포유동물과 달리 암컷은 이형 배우자인 Z와 W 염색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정시 Z 염색체를 갖는 난자와 정자가 합치게 되면  $(39 \times Z) + (39 \times Z) = 80$ 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웅성 접합체가 되어 수컷이 되고,  $(39 + W)$ 의 난자와 정자가 합치게 되면  $(39 \times W) + (39 \times Z)$  자성 접합체로 암컷이 된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우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난자 중 그 염색체를 지닌 것과 지니지 않은 것과의 결합비율은 50% 확률로 결정되므로 새끼오리의 암·수비율은 1:1로 나타나게 된다.

▶ 현대축산뉴스 이희훈 대표이사 [2013. 12. 31]